

광주매일신문 'NIE 신문만들기 콘테스트' 맑은누리지역아동센터 '대상'

무지개·서남지역아동센터 '최우수상' 창의력 돋보이는 수준높은 작품 다수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하는 'NIE 신문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광주 북구 맑은누리지역아동센터가 대상에 선정됐다.

광주매일신문은 2025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교육사업에 선정돼 지역신문활용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취재·편집 등 신문 제작 기회를 제공했다.

심사는 30일 본보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최강남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장과 본보 박희중 문화부장이 참여해 창의성·전달력·신문 편

집·제작 참여·정성평가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남구 무지개지역아동센터와 서구 서남지역아동센터, 우수상은 광산구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북구 서머할지역아동센터, 서구 신나라지역아동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에 선정된 맑은누리지역아동센터는 '신문과 친해지기'라는 NIE 교육 목표로 충실했으며, 신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과 책임감을 기른 것은 물론 신문 제작 열의 또한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제작에 대한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센터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했으며, 지역사회 속 아동센터의 역할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

었다.

최강남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신문만들기 프로그램이 매년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며 "센터별로 창의력이 돋보이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아 심사도 고심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신문 만들기에 참가하면서 서로 뜻을 모아가는 것을 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맡은 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신문 제작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공익기관으로서 네트워크 구축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 보람을 느낀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후 4시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이달 말까지 본사 로비에 전시된다. /최명진기자



동국뮤지엄 전시 현장...진양욱·진시영 부자 작품, 19일까지 선봬

보문복지재단 동국뮤지엄이 '점·선·면·색 추상미술의 경계 확장' 전시 중 2부 '시간의 결, 있다: 회화에서 미디어아트로'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 지난 8월8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1:2 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영은미술관 소장품 전시는 지난달 28일 종료됐으며, 2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방문객과

함께하는 기회로 이어진다.

2부 전시는 광주·전남 화단을 대표했던 진양욱 화백과 아들 진시영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보여준다.

진 화백의 회화 대표작인 '시가풍경'(1977), '무등산'(1984)과 작업 노트, 화구 등 아카이브 자료가 공개된다. 진시영 작가는 부친의 색채

와 형식을 디지털 환경에서 재해석해 영상 설치작품으로 확장했다.

특히 '영원의 시작'(2025)은 진 화백의 유작 '청산'(1984)을 원작으로 삼아 몰입형 공간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정영현 보문복지재단 동국뮤지엄 이사장은 "아버지의 길을 잇는 동시에 더 멀리 뻗어나가는 예술 서사가 세대를 넘어 올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김규리와 함께하는 국제수묵비엔날레 특별 프로그램

오늘 전시관람·티타임 등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30일 "홍보대사 김규리와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 '전시관람&티타임'"을 1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진

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해설을 넘어 홍보대사와 관람객이 같은 공간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작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며 함께 공감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전시를 감상한 뒤 김규리 홍보대사와 수묵비엔날레 작품을 주제로 서로의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티타임에선 '김규리에게 한마디'를 포스트잇에 적어 직접 질문하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된다.

/양시원기자



어머니의 밥상 기억을 출발점으로 '돌봄과 관계'를 숲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진허 작가의 개인전 '내에게 숲을 줄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예술공간 집에서 오는 2일까지 진행된다.

작가는 엄마의 딸에서 세 아이의 엄마가 된 삶의 변화를 화폭에 담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차려주던 푸짐한 밥상은 헌신과 사랑의 상징으로, 현재는 세 아이에게 전해지는 또 다른 밥상으로 이어졌다. 작가에게 밥상은 식사의 자리를 넘어 세대를 잇는 숲과 같은 삶의 무대다.

전시장에서는 붉은 고추가 줄줄이 매달린 설치 작업도 만날 수 있다. 고추는 작가 작품의 주요 소재로, 실제 작가의 어머니가

말린 고추가 함께 전시되며 밥상의 내음을 불러낸다. 화면 속에서는 붉은 고추와 초록 고추가 등장하고, 한 밥씩 정성스레 수놓은 자주 작품도 선보인다.

작품 속 자연과 식물의 이미지는 숲처럼 얽히고 확장되며, 가족과 공동체가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망을 암시한다.

진허 작가는 "오늘도 엄마의 헌신을 담은 빛깔이 아이들 안에서 반짝인다는 것을 깨닫는다"며 "일상의 반복 속에서 드러나는 송고한 순간들을 작품으로 담아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2025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전문 예술인) 지원으로 마련됐다. /최명진기자

광주대 동문 신동혁 작가, 첫 개인전

'Moment of Folding'

오는 10일까지 호심미술관서

종이접기 패턴 담은 금속 주얼리

광주대학교 동문 신동혁 작가의 첫 개인전 'Moment of Folding' 주얼리 작품전이 오는 10일까지 교내 국가관 1층 호심미술관에서 열린다.

30일 광주대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 신 작가는 오리гами(종이접기)에서 착안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을 금속 재료로 표현한 실험적인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가볍고 유연한 종이의 성질을 무겁고 단단한 금속에 적용해 상반된 물성의 조화를 주얼리로 형상화했다. 작품은 전통 금속공예 기법과 현대 기술의 융합으로 완성됐다. 특히 금속을 접어 각을 세우는 '각접기'와 3D 장비를



◀Unik 13 ▶Unik 06

활용해 종이접기 특유의 복잡하고 치밀한 구조를 정교하게 구현했다.

최준호 호심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재료 변환을 넘어 한국 현대 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도"라며 "재학생과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